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

의안 번호	255
----------	-----

제안년월일 : 1993. 8. 6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주 문

충북대학병원을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일반직원 (간호직, 보건직, 약무직, 행정직등)의 정원을 늘려 기준 병상확보가 가능토록 하여 주기 바람.

2. 제 안 이 유

- 3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건립된 충북대학병원의 시설 및 장비를 절반 밖에 사용치 못하는 실정으로,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사장에 따른 예산낭비
- 3차진료가 필요한 응급 또는 중환자의 원거리(서울, 대전등) 치료에 따른 병세 악화 및 진료외적 과중한 경제적 부담 가중
- 병상의 감축운영으로 정신과 환자나 소아과 환자의 격리 치료가 어려워 감염 또는 사고위험이 있음.
- 전국에 35개의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충청북도에는 없음

3. 참 고 사 항

별첨 " 건의문(안) "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관련건의문(안)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보사부장관, 교육부장관, 총무처장관님께!

신한국 창조를 위해 전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내 유일한 3차진료기관 대상인 충북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개원한지 2년이 지나도록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도민 보건향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등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낭비와 국고의 손실입니다.

3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거의 절반 밖에 활용하지 못하므로써 시설과 장비의 사장에 따른 막대한 국고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환자 및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대전·서울 등 외지에 있는 3차진료기관을 찾아가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및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시설병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99개 病床을 목표로 건립된 병원이 의료인의 부족으로 280개 病床만을 운영하므로써 정신과 병동이나 소아과 병동의 격리 치료가 어려워 병균감염 및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35개의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충청북도 대전료권만이 유일하게 3차진료기관이 없으므로 도민의 소외감이 점증하고 있고 충북대학병원의 3차진료기관 지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활용 가능한 병상으로는 크게 부족하여 입원환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며, 많은 외래환자가 장기간 진료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유일의 치료 방사선과의 경우도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도민 보건향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3차진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病床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는 의과대학교수 등 전문의료진과 시설은 확보되어 있으나 일반직원 (간호, 보건, 약무, 행정직 등)이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공무원증원 동결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설의 신규 및 계속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필요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민 모두는 충북대학병원이 3차진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어 건의하오니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해결을 통하여 신한공창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8. 7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